2020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합니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2020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합니다.

20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행정안전부 |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합니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여는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줍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이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을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밑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여는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은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는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03. 의제 실행 31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4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47P

MONDEGGI
NON SI VENDE
ANIMAL RIGHTS PARADE
ANIMAL RIGHTS PARADE
All different, All together!

하나

북성로

활성화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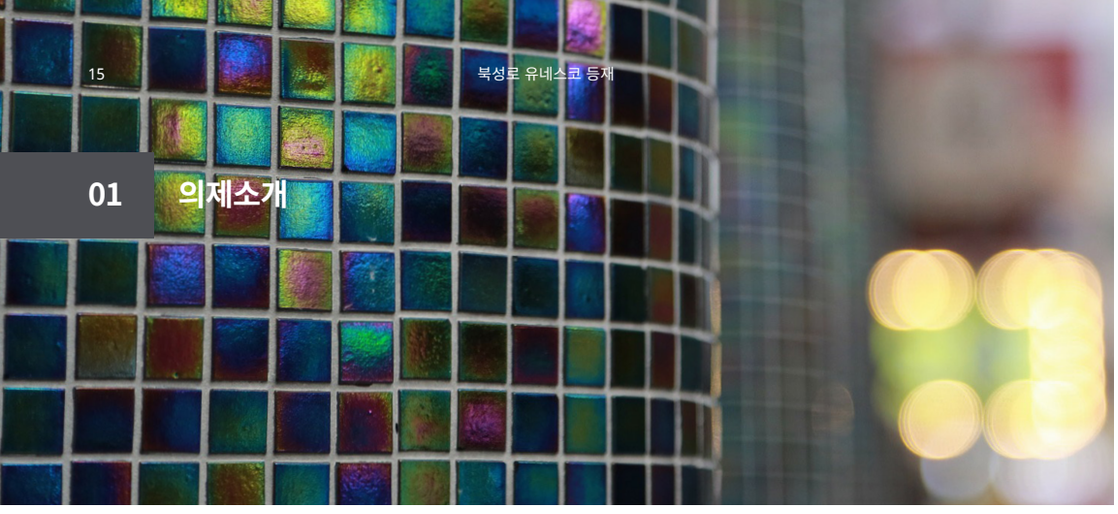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01 의제소개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합니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북성로 공구골목, 쇠락의 길을 걷다.

1906년 일본 제국에 의해 대구 읍성 북쪽 1.42km가 허물어지며 만들어진 북성로. 일제강점기에 대구 최고의 번화가로 이름을 알리며 광복 이후, 사교와 문화의 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공구상가들이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70~80년대에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왔습니다.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이 거리는 IMF 국제 금융 위기를 맞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공구 골목의 망치 소리, 쇠 자르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성로는 재개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북성로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구의 자산인 북성로의 공구 골목이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의 재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훌라와 함께하는 북성로 지키기

이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는 북성로의 기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북성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북성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업싸이클링밴드 훌라(HOOLA)와 함께 [북성로 유네스코]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제 실행을 통해 대구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북성로 공구 골목의 가치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합니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협업 테이블을 4차례 진행하여 산업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관련 사례자료 수집, 유네스코 등재에 참여했던 행정, 연구자 등의 자문, 진행할 실무 추진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훌라는 공구골목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첫걸음

북성로 보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공구 골목의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북성로 공구골목 보존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활성화된 북성로를 기대합니다.

의제 실행 방안

1. 기술산업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①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협업테이블을 통해서 산업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진행

2. 북성로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①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사례자료의 수집

② 유네스코 등재에 참여했던 행정, 연구자등의 자문

③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무추진체계 구성

실행계획 (추진일정별)

11월 **협업테이블 준비회의**	• 협업테이블 진행시기, 구성, 홍보등에 관한논의
11월 **북성로-청계천,을지로의 비대면 답사 프로그램진행**	• 비슷한 환경에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온라인 답사를 통해 기술산업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존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
12월 **협업테이블**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테이블 진행
20.12월~21.2월 **자문회의**	• 유네스코등재와 관련된 행정, 연구자들에게 자문
상시 **자료수집**	•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훌라(HOOLA)	의제 실행 기획 및 운영	
2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관 연계 및 의제 실행 지원	

실행 주체 소개

1 훌라(HOOLA)

설립목적

획일화된 도시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를 더욱 가치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함

주요사업

- 오픈팩토리 행사 <북성로 축제>
- 업사이클링 :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 도시문화 콘텐츠 기획·제작
- 인문·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운즈 오브 시티>

2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설립목적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공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함

비전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풀어갑니다.

주요사업

- 온·오프라인 과제 발굴
- 의제실행지원 : 과제심화·자원연계
- 의제협업주체 역량강화도모
- 홍보채널운영 : 지역문제해결과정 홍보 및 인식확산

둘

북성로

활성화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03. 의제 실행 31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1단계

*** 사업추진방식 논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공간 탐색
민간협업단체 사업연계)

북성로유네스코 의제 제안
제안자 : 훌라(HOOLA) (안진나 대표)

9월 16일

북성로유네스코 의제 추진 검토
참여자 : 의제 집행위원회

북성로유네스코 의제 선정
참여자 : 의제 집행위원회

2단계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11월 16일
1차 협업테이블
훌라(HOOLA)

11월 18일
2차 협업테이블
훌라(HOOLA)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24일
3차 협업테이블
훌라(HOOLA)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2월 21일
4차 협업테이블
훌라(HOOLA), 경문보링, 세종스텐
신우금속, 4.9인혁재단, 시간과공간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의제 제안

제안자	훌라(HOOLA)	안진나 대표

제안 내용 요약

제안과제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 추진목적

- 대구 근대의 역사, 문화, 산업의 중심지 북성로의 고유한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하여 다음세대로 전달하고자 함.
- 근대건축물, 근대산업기술생태계 등이 보존되어 있으나, 최근 아파트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북성로. 이곳의 공유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하며 문화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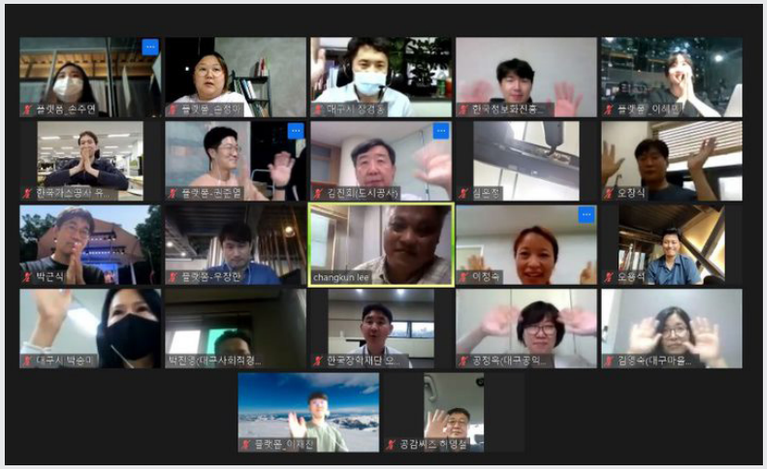
• 내용

- 북성로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과정 추진 (역사, 도시, 건축, 인문지리, 기술생태계, 근대공업기술장인 등)
-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호흡해온 살아있는 삶의 현장인 북성로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사항 검토

• 협업이 필요한 기관

- 관련 전문가 그룹(대학, 연구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구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 검토



개요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16:00-17:00 진행 : 온라인 (ZOOM)
참여자	의제 집행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북성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과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대구시 도시재생과(도심활성화팀)에서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때 북성로가 도시재생과 더불어 창의적인 도시컨텐츠로 인식되어 많이 알려졌다. 현재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이 필요해 보임.

- 북성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시민들이 많으므로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위하여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의 경우 대구시-중구청 등 행정의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1차로 필요해보임.

-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성로 가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의견 내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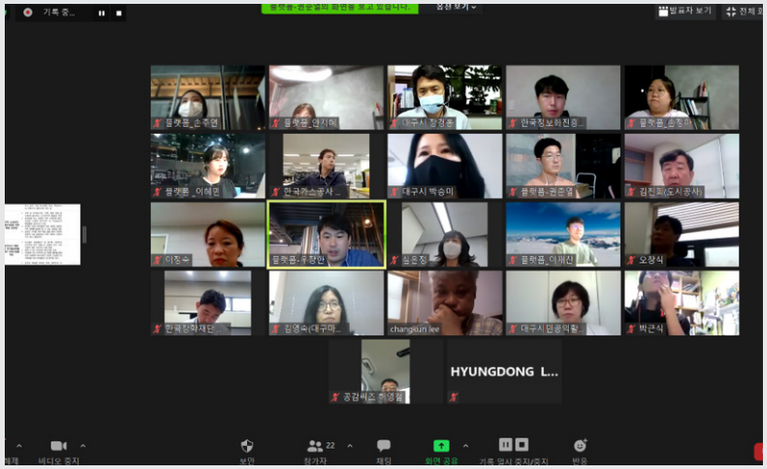
- 대구지역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취지에는 공감하나, 북성로 외에 다른 문화유산은 없을지 검토 필요.

- 북성로 일대가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북성로가 재평가되기를 희망.

- 북성로를 유네스코 등재하여 다음세대 지속가능한 문화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중구 근대골목투어처럼 또 새로운 대구 관광자산으로도 가치가 있음.

- 유네스코 등재라는 목표는 일견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해보일 수 있음.
'전국 관광지로서의 북성로 매력 제고 프로젝트' 정도로 수정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어떠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의제 선정



개요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진행 : 온라인 (ZOOM)
참여자	의제 집행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번호	제안연도	키워드	의제내용	채택 수
1	20'	청년 / 문화	• 대구 북성로의 고유한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다음세대로 전달하여 지속가능한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자 함. • 북성로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과정 추진(역사, 도시, 건축, 인문지리, 기술생태계, 근대공업기술장인 등) •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호흡해온 살아있는 삶의 현장인 북성로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사항 검토	10표

제안과제 투표 결과
: 3차 집행위원회 의제선정 기준(5표 이상)에 준하여, 5개의 과제가 모두 선정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03 의제실행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북성로유네스코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14:00 장소 : 청계천-을지로 일대 답사 후 수정다방	
참여자 : 10명	홀라(HOOLA)	안진나 대표 활동가 박은선 최혁규 안근철 장현욱 정아람 김효선 문찬미 나제현 문종민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각자 소개 및 취지 공유

- 청을련(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이 문화사회연구소를 통해 애코팩토리 리빙랩 사업을 진행중. 작업장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사회자본 기록을 하는 프로젝트. 이 사업에서 포럼을 하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고, 이를 홀라(HOOLA)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홀라를 청계천으로 초대. 홀라도 영남대 지역협력센터 지원을 통해 포럼을 해볼까 고민중이었음

안건2.

지역 상황 및 고민 공유

- 청계천의 경우,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이나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산업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부족. 홀라(HOOLA) 같은 문화기획들을 더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재개발 대응이 우선적이라 그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

- 북성로의 경우도 도시재생과 동시에 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중. 홀라(HOOLA)의 기본은 기록과 아카이빙. 또한 무거운 주제를 예술을 통해 즐겁고 재밌게 표현하는 방법을 추구. 하지만 철거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방식들도 모색해보려 하고 있고, 청을련의 경험을 들어보고자 함. 최근 대구시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북성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의제를 제안해서 추진 중

안건3.

공동포럼 기획

- 공통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로드맵을 세워 진행. 청계천과 북성로가 도시 개발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도시다양성과 문화유산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포럼을 기획하여 유네스코 등록도 공동으로 공론화 계획 중. 우선 가볍게 비대면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두 차례의 본격적인 주제 포럼 진행. 한 번은 기술산업생태계에 관한 내용, 다른 한 번은 도시재생과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 (북성로와 청계천에서 각 한 번씩 진행)

- 홀라(HOOLA)가 진행하고 있는 영상 프로젝트인 '팬데믹 시티'에 청을련 응답, 청계천에서 홀라(HOOLA) 공연 개최, 인터-로컬 리서치 프로그램 기획 등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북성로유네스코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14:00 장소 :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참여자 : 4명	홀라(HOOLA)	안진나 대표 김효선 활동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매니저 손정아 매니저
기록자		손정아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공유 1.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관련 의제 검토의견**

• 사업방향

- 지역의 중요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의제이며, 도전할만한 과제라는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 다만, 북성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필요하고, 많은 대구시민들이 북성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듯.
- 언론, 활동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하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안건 1.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관련 의제 선정에 관한 실행논의**

- 유네스코 등재라는 큰 목표를 두고 현재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할 듯.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논점을 분명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함.(의제실행의 방향을 정확히 하고가자.)
- 현재 청계천,을지로 보전연구회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내년도 교류포럼을 준비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임. (기술생태계, 도시의 다양성, 유네스코보존, 개발과 관련된 논의테이블을 어떻게 진행할까 논의하고 있음)
- 중구청 문화교육과, 대구시 문화예술과는 북성로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관심이 있음. 청년 정책과도 청년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북성로의 이야기를 담고 설득해 낼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많고, 이것을 하나로 엮어내고 공론화하고 함께 움직여줄 시민사회가 필요한 상황.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
- 올해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의제에 대한 가벼운 논의부터 시작하면 좋을 듯.
- 이미 계획하고 있는것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협업할 수 있는 지점도 충분히 있을 듯 함
- 논의테이블의 구성은 ①운영위원회, ②관심자, 이해관계자 중심, ③청계천을지로 보전연구회를 대구로 초청 정도 가능할 듯
- 언론, 홍보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 필요.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북성로유네스코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5:00 장소 :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참여자 : 4명	홀라(HOOLA)	안진나 대표 김효선 활동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매니저 손정아 매니저
기록자		손정아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관련 의제 포럼 및 협업테이블 진행 논의**

- 일정: 12월 중순 이후
- 대상 : 이해관계자 중심(운영위원회+북성로 활동가) 10명 미만으로 2회 정도 진행 예정
- 내용: 북성로의 현재 상황과, 하나의 전환 방법으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역할은 이 의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거나, 행정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주면 좋을 듯 함.
- 올해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듯 함.
- 계속적으로 청계천팀과는 논의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서울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다. 11/28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전신청을 받아 접속하는 형식인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팀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듯하다.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북성로유네스코 협업테이블 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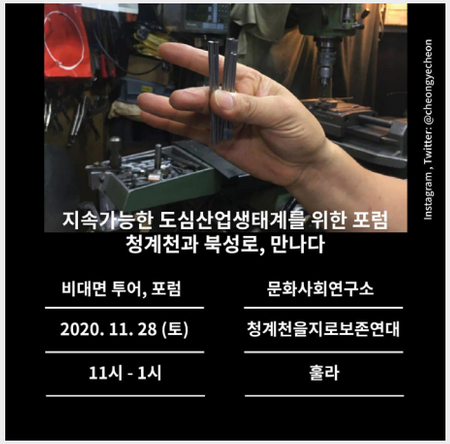
개요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16:30	
	장소 :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참여자 : 10명	훌라(HOOLA)	안진나 대표
		활동가
		김효선 문찬미 나제현
	경문보링	이병문
	세종스텐	김병환
	신우금속	이종점
	4.9인혁재단	박근식
	시간과공간연구소	권상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상훈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모임 (북성로 주민)**

- 자기소개
- 북성로의 가치, 중요성
- 도시 다양성,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심산업생태계를 위한 포럼
청계천과 북성로, 만나다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11:00-13:00 내용 : 북성로와 청계천 답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중계하고 후기 교환
일정	11:00-11:10 답사 안내 11:10-11:50 북성로 비대면 답사 11:50-12:00 휴식 시간 12:00-12:40 청계천 비대면 답사 12:40-13:00 답사 후기 교환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4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47P

북성로

활성화

01 의제 실행 성과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① 북성로와 비슷한 환경의 을지로-청계천 보존연대와 함께 온라인 비대면 답사진행

② 북성로 기술장인들과의 협업테이블 진행 기획 논의 중

③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수집

④ 의제 진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회)

⑤ 협업테이블 참여자 18명 / 참여기관 8개

협업테이블 4 회

협업테이블 참여자 18 명

협업테이블 참여기관 8 개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자문의견서

최범순
영남대학교
지역협력센터 센터장

<북성로 100년>이라는 틀에서 <북성로가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의미 찾기-부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왜 북성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북성로의 무엇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성로>는 '100년'이라는 시간 궤적 속에서 다양하게 변모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망라한 작업-성과물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북성로 100년의 변모 과정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성로가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이야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때 100년을 대상으로 한 <북성로 아카이빙> 작업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북성로 100년 : 북성로의 가치와 의미 찾기> 작업을 관심있는 주체들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꾸준히 축적하고 발신한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더라도 현실의 변화 속에서도 '북성로가, 혹은 북성로 이야기'가 보존되고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승택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북성로 공구거리를 《소규모 작업장들에서 기술을 전승하며 공생하는 한국식 모델》 등으로 특성화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목표로, 우선 국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프랑스의 콩파뇨나주(지식과 정체성을 작업장에서 전수하는 장인 직업훈련 네트워크), 독일의 협동조합(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콜롬비아의 전통공예 보호전략(평화 구축을 위한 전통 공예의 보호 전략), 프랑스의 미식문화 등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추진은, 단순히 현행 제도와 법규 내에서의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관련 법령과 제도적 기반을 문화기본법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추진이 북성로 여건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추진이 오히려 가까운 길일 수 있음. 단지, 이 경우에도 북성로가 지닌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관련 내용은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근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추진 작업에 참여한 실무인력, 북성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내 혹은 해외 유사 공간과의 비교 검토 및 연대 추진, 국내 문화재 관련법 상 산업문화유산의 국가 제도화 등을 아울러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이해관계자 중심의 포럼, 협업테이블
개최를 위한 실무미팅 논의 (온오프라인)

2 서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3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조사, 자문 및
실무추진체계 구성

의제 가이드북
무분별한 도시재생으로부터 지역의 자산을 보존합니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발행일 2021년 04월 22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디자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